

연예 일반  
장근석 '일장기 오토바이' 네티즌 찬반 논란 확산

강영수 기자

입력 2007.06.19 16:29 | 수정 2007.06.19 16:35

배우 장근석의 '일장기 오토바이'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.

장근석은 지난 4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오토바이를타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다.



'일장기 오토바이'타고 있는 장근석 /미니홈피 캡처

그러나 문제는 장근석이 탄 파란색 오토바이에 선명하게 일장기가 붙어 있었던 것.

장근석은 이 사진 밑에 "차 보다 오토바이가 좋은 이유는 발레파킹을 맡기지 않아도 되고,차 보다 훨씬 간단하며,바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 인간인지 알게 해주며,나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속에 모든 잡념과 걱정을 깨끗하게 씻어 버릴 수 있다.너무나 많은 슬픔과 고통 외로움은 바람에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도 있으며,너무나 많은 것을 보다 자유롭게 보고 느끼게도 한다"라면서 "그래서 난 오토바이가 좋다"고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.

이 사진이 각종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거센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.

네티즌들 사이에선 "어떻게 한국의 연예인이 일장기가 붙은 오토바이를 타면서 즐겨워 할 수가 있냐" "너무 철이 없는 것 아니냐" "태극기만 봐도 자랑스러운데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로 바꿔달라"는 반응이 많았다.

반면 "일본 제품을 쓴다고 다 매국노냐" "자기취향인데 너무 비난말라"는 옹호글도 나왔다.

논란이 확산되자 장근석의 소속사측은 언론인터뷰에서 "오토바이는 화보 촬영 소품용으로 지난 3월쯤 화보촬영 때 스태프중 누군가가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"이라며 "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치게 돼 팬들에게 죄송하다"고 밝혔다.

Copyright © 조선일보 & Chosun.com



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| 인터넷신문등록번호 : 서울 아01718 | 등록(발행)일자 : 2011.07.26 | 발행인/편집인 : 홍준호 | 대표번호 : 02)724-5114  
개인정보처리방침 | 청소년보호정책(책임자: 우진형) | Copyright © All rights reserved

SAMSUNG KOREANAIR

조선일보 | 회사소개 | 기자채용 | 기사제보 | 고객센터 | 독자권익보호위원회 | 조선일보 뉴지임 | 미술관이용  
광고안내 | 콘텐츠구매 | 기타 제휴 문의 | 조선닷컴 전체서비스

관련회사 ▼